제 9 회 국제카톨릭 간호협회 총회참관기

——마닐라에서 보내온 편지——

〈마닐라 바울대학 간호학교〉 전 시 자

고국에서 수고하시는 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모두 안녕 하십니까?

2년동안의 Supplemental Course(간호학교 졸업생의 학사학위를 위한 보충과정)을 위해 1968년 마닐라에 온 뒤 졸업을 얼마 앞두고 마닐라에서 열린 "제 9 회 국제 카톨릭 간호협회 총회"를 구경하고 그 인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펜을 들었읍니다.

1970년 1월 18일부터 1월 23일까지 열린 이 회의에는 26개국 대표 약 8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메리놀 간호학교장으로 계시는 파트리시아 수녀님과 성 바오로 병원에서 일하시는 비울빈 국적의 로자린 수녀님과 마닐라에서 공부하시는 한국 바오로회 수녀님 세분이 참석 했읍니다. 엿새동안 여러 대표들에 의해 토론되고 발표된 주제 중에서 "현대병원에 있어서의 간호원의 위치"와 앞으로 간호원이 당면할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함께 소개 드리려 합니다.

각국 대표들이 발표한 각 나라의 간호원의 위치와 문제점들은 크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읍니다.

여기서 일본의 실정을 잠시 소개하여 드리면 세계 제4위의 경제력과 최고의 기계문명을 자랑하는 이 나라에서도 간호계는 예상외로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만 환자의 수용능력을 가진 8000여 현대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의학, 연구, 교육 등 눈부신 발전을 보이는 반면 간호계는 독립된 직업으로 보다 의사들에 의존한 부수 업무이고 간호교육은 자율적인 교육기관이라기 보다 병원에 예속된 훈련 기관이라는 점을 보였읍니다. 1965년 통계에 의하면 98%의 간호원들이 이런 병원 간호학교의 졸업생들이며 간호원들의 책임과 존엄성과 간호원의 직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대 병원에 있어서의 간호원의 위치" 란 심포지움에 발표한 이부까·카터린씨의 보고)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간호계에서도 당면하고 있고 또 벌써 얼마큼 성공적으로 극복 했다고 필자는 믿기에 여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점이나 해결책은 생략하기로 하고 미국과 불란서, 벨지움의 대표들이 보인 공통적인 점들을 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세기 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환자를 위한 모든 일들 즉 투약, 간단한 치료, 식이, 침상, 목욕에서 부터 병실관리, 물품청구, 특별식이준비 물리치료 등 모두 간호원의 책임이었던 것이 의학의 발달함과 간호원의 지식과 기술이 더 요구되고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차츰 다른 의료원에 의한 업무분담이 불가피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차츰 환자의 간단한 신체적인 간호는 보조간호원에 의해, 혈관주사는 혈관주사 전문원에 의해, 증기흡입은 증기흡입 치료사에 의해, 등등으로 간호업무가 분리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런 기계화되고 분업화된 병원이라는 산업에서 간호원의 위치와 역할은 많은 혼돈을 초래하고 있지만 결과로 간호원의 역할이란 없어지는게 아니라 더욱 불가피 하리라는데 의견을 일치 했읍니다. 즉 간호원은 환자를, 기계나 기구의 한 부분이 아닌, 인격과 존엄을 갖춘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환자와의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불안과 고통을 위로하고 덜어주며, 환자자신이 치료에 참여 하도록 이끌어 주며, 조직적이

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계획하고 다른 직원들과 조정하여서 불필요한 중복은 피하고 끊이지 않는 계속적인 간호를 마련하고, 환자의 건강지도를 하며, 가족들을 이해시키고 협조하도록 이끌어 주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 곁에서 그 도움을 제공하는 인간으로 남는 일이라 하겠읍니다.

다른 공통적인 문제들로는

첫째 : 간호원의 세계적인 부족을 들 수 있겠읍니다.

몇가지 제시된 이유를 들면, 근무시간이 결혼후의 가정생활에 맞추기가 어렵고, 간호원이라는 직업이 매우 긴장을 초래하며, 월급이 적고 승진의 희망이 적으며, 또 적지 않은 간호원의 수가 간호업무에 흥미가 부족하며, 의학의 발달에 따라 간호원의 필요가 늘어 간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 첨가된 후진국 간호원 부족의 이유로는 나은 월급과 대우를 위해 계속 선진국으로 나간다는 점을 들었읍니다.

이의 해결책으로 주부들을 위해 시간제 일을 가능케하고, 능력있고 열의있는 간호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일과 위치에 상당한 월급을 제공하고, 정당한 근무시간과 휴일을 고려하고, 조직적이고 기술적인 훈련을 위해 간호원들의 간호교육(in-service-education)을 강화하는 점을 들었읍니다. 승진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태까지의 간호원의 승진이 환자간호로부터 간호 행정으로, 다시 말해서 환자로부터 멀어지는 위치로 옮기어 진다는 점을 생각 할 때 이는 원래 간호의 기본이념이나 철학으로부터 심각한 모순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미국에서 보인 이 한 해결책으로, 승진을 환자간호에서 멀어지는 대신 더욱 밀접히 이를 전문화하고 최대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서 활용하는 한편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임상간호 전문가"로 승진 시키며 또한 이의 발전을 보이고 있읍니다.

둘째 : 간호를 연구(research)에 근거를 둔 과학적이고 확고한 전문직으로 발전 시켜야 된다는 점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를 장려하고 장학금을 제공하며 이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월간지가 있어야 겠읍니다.

셋째 : 현재의 간호교육을 현실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에서의 노력은 3년제 간호학교를 폐쇠하고 4년 혹은 5년제의 학사학위 과정과 2년제 초급 간호 대학으로 간호교육의 이원화를 이룩하려고 애쓰는 반면 불란서에서는 지금 2년제의 간호교육 과정을 3년제로 하는 개정안을 1970년 10월 교육위원회에서 통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합니다. 이 간단한 대조는 간호교육이 기술의 연마에 중점을 두면서도 기술이 전에 간호학생들을 모나지 않는 개성의 발달과 조화된 인간으로, 나아가서는 건전한 시민으로, 먼저 육성시켜야 한다는 필요를 절실히 나타내주고 있다 하겠읍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들은 간호원인 우리 자신들과 간호협회의 일원화된 끊임없는 노력과, 동시에 사회와 국가의 이런 필요에 대한 인식과 협력으로 해결되고 발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읍니다.

References

Symposium "The Nurse and her place in the modern hospital"

Reported by;

Mrs. A. Wright-Atkinson, for the Pacific Area.

Miss Katherine Ibuka, Japan.

Miss F. Flynn. U.S.A.

& Workshop of the several groups of the Congress.